

# KIA '20승 듀오' 실전 출격, 한국시리즈 로테이션 가동

연습경기 3경기과 마지막 라이브배팅 끝 실전 대비훈련 마무리  
 헥터·양현종, 최대 무기...20일 넘는 재충전 시간 최대 컨디션

KIA가 한국시리즈를 대비한 선 발로테이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을 펼치고 있는 KIA는 18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두 번째 자체 연습경기를 가졌다.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의 연습 경기를 갖는다. 2경기는 야간 1경기는 주간에 펼쳐진다. 3경기과 마지막 라이브배팅을 끝으로 실전 대비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습경기 선발로테이션도 나왔다. 이날은 헥터 노에시가 선발투수로 나선다. 연습경기 상대는 2군 정예요원과 1군의 백업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19일 연습경기 선발 투수는 양현종이 등판한다. 두 투수는 지난 14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각각 1이닝을 소화했다. 첫 등판이 몸 풀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던지는 셈이다. 두 투수들은 2군 팀의 선발투수로 등판해 1군의 정예 타자들을 상대로 피칭을 한다. KBO리그 출범 이후 최대인 7명의 규정타석 3할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상대팀이 두산 혹은 NC라고 가정하는 등판이다. 3선발투수 팻틴은 21일 세 번째 연습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KIA가 한국시리즈에서 내세울 최대의 무기는 선발투수진이다. 20승 듀오 헥터와 양현종, 9월들어 에이스급 투구를 펼친 헥터와 변화무쌍한 불을 던지는 임기영까지 4명의 선발진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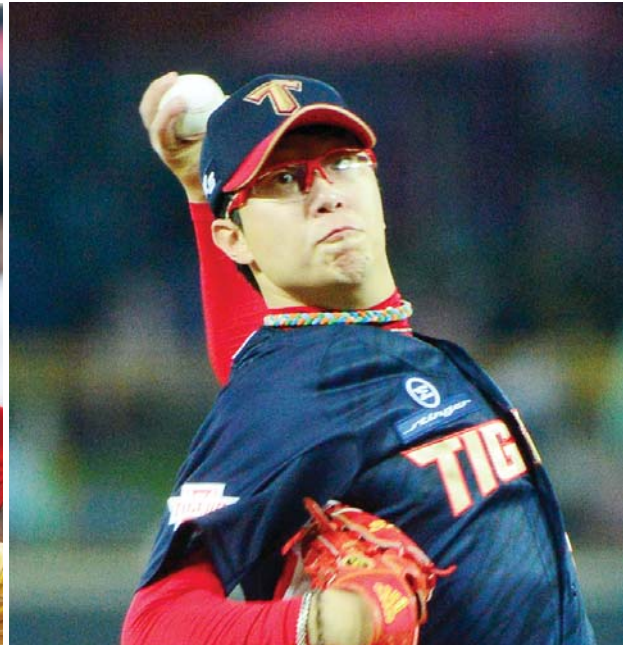
다. 불안한 불만을 감안하면 선발 투수들이 최소한 6이닝을 소화해야 승산이 있다.

특히 20승 듀오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시리즈에서 각각 2경기씩 책임진다. 연습경기 등판 순서를 감안하면 한국시리즈 1~2차전도 헥터와 양현종이 차례로 선발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어 5~6차전에 출격한다. 4경기를 책임지는 두 투수의 어깨에 시리즈의 명운이 걸려있다.

상대가 두산 혹은 NC이면 까다로운 타자들이다. 헥터는 올해 두산에 상대로 3승1패 평균자책점(Era) 4.06, NC를 상대로는 3승무패 Era 2.33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두산전 1승1패 Era 6.17, NC전



3승2패 Era 3.81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만 보면 NC는 제물을 했지, 경기 당일의 컨디션과 큰 경기에만 두산에게는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시리즈는 정규 시즌의



수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 당일의 컨디션과 큰 경기에 대한 부담 등 변수들이 상당히 작용한다. 상대 타자들의 집중력도 최고조에 있다. 그래도 일단 20일

이 넘는 재충전을 통해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장점은 있다. '20승 듀오'가 서서히 전신을 향하고 있다.

뉴스

## 박지성 "亞축구, 세계와 격차 여전"

日 언론과 단독 인터뷰... "일본, 한국과 달리 기복 적어"



현역 시절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명성을 떨치던 박지성(36)이 "아시아 축구는 여전히 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지난 17일 야후재팬에 게재된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세계 최고 수준과 격차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세계 최고 수준과 격차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세계 최고 수준과 격차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세계 강호와 아시아 국가의 격차가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싸우기 전부터 포기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실전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성은 이어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외파가 많아 유럽 국가를 상대해도 압박은 적었지만 축구는 개인이 아닌 조직이 싸우는 것"이라면서 "개인의 경험치가 아니라 팀 전체로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은 "일본의 유럽과 선수들에 대해 자세한 평가를 이어간 박지성은 큰 무대에 도전하는 아시아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에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운을 뗀 박지성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은 "말을 해야만 동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생각을 전할 수 있다. 결론이 아시아인의 미덕이지만, (유럽에서는) 자기주장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통역을 통하면 미묘한 뉘앙스를 전하기 어렵고 동료, 감독과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는다. 문법과 단어가 틀려도 마음은 전해진다. 앞으로 유럽에 올 선수에게는 언어를 마스터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충고했다.

박지성은 "말을 해야만 동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생각을 전할 수 있다. 결론이 아시아인의 미덕이지만, (유럽에서는) 자기주장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통역을 통하면 미묘한 뉘앙스를 전하기 어렵고 동료, 감독과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는다. 문법과 단어가 틀려도 마음은 전해진다. 앞으로 유럽에 올 선수에게는 언어를 마스터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충고했다.

## 김선형, 발목인대 파열 12주 진단...SK·대표팀 모두 '비상'

지난 8월 아시안컵 맹활약하며 한국 3위 공헌



프로농구 서울 SK의 가드 김선형(29)이 17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오른 발목 부상을 당했다. 김선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다. SK는 이날 경기에서 82-77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산뜻한 시즌 출발을 알렸다. 돌아온 애런 헤인즈에

프로농구 서울 SK의 가드 김선형(29)이 심각한 발목 부상으로 최소 12주 이상 코트를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팀, 대표팀 모두 비상이다.

김선형의 소속팀 서울 SK는 18일 "전날 부상을 당한 김선형이 오른 발목 외측인대 파열과 종골(복숭아뼈 아래부분) 일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이날 오전 일찍 팀닥터인 강남세브란스 양규현 박사의 집도로 인대접합수술을 마쳤다. 12주의 재활기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선형은 지난 17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3쿼터 도중 오른 발목을 다쳤다.

쿼터 종료 2분30초를 남기고 속공 득점을 성공한 후 차지 과정에서 오른쪽이 전진법(도비스)의 발뒤꿈치에 살짝 걸렸다. 발목이 심하게 꺾였다. 김선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들것에 실려 체육관을 빠져나갔다.

그의 수술과 장기 결장은 우승후보 중 하나인 SK와 대표팀에 악재

## '해트트릭' 광주 완델손, K리그 34라운드 MVP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4라운드 MVP로 완델손(광주FC)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팀의 4-2 대승을 이끌었다. 승점 26점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중인 광주는 이번 승리로 11위와의 격차를 7점 차로 좁히며 잔류 불씨를 살렸다.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의 라운드 MVP 선정은 K리그와 스포츠투어가 공동으로 개발한 '투이이 지수(득점, 슈팅, 패스, 볼 컨트롤,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등 주요 경기 행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지수)'와 연맹 경기평가회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완델손은 짧은 출전시간(36분)에도 불구하고 4번의 유효슈팅을 통해 3득점을 몰아치는 등 활약으로 투이이 지수 총점 42점을 기록했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완델손과 조나탄(수원)이 뽑혔다. 김승태(포항)-세진아(대구)-본즈(광주)-김태환(상주)이 미드필드진을 형성했고, 완델손(포항)-황현수(서울)-윤영선(상주)-최효진(전남)이 4백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골키퍼는 신화용(수원)으로 결정됐다.

테리코 화이트 최준용, 최부경, 변기훈 등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바탕으로 초반에 치고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선형의 이탈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선형은 지난 시즌 평균 15.1점 6어시스트로 프로 데뷔 후 최고 활약을 펼쳤다. 팀내 비중이 절대적이다.

문경은 SK 감독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으로 영입한 정재홍과 식스맨 최원혁 등이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허재 감독도 문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달부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예선이 시작된다. 한국은 23일 뉴질랜드 원정을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한다. 28일에는 안방에서 중국을 상대한다.

김선형의 부재는 대표팀 가드진의 무게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김선형은 지난 8월에 열린 아시안컵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이 3위에 오르는데 공헌했다.

뉴스



## 정현, 스톡홀름 오픈 2회전 진출...오늘 앤더슨과 맞대결

한국 테니스의 2관왕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54위)이 남자 프로테니스(ATP)투어 스톡홀름 오픈 2회전에 진출했다.

정현은 18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109위 마르틴 퍼소비치(25·헝가리)를 2-0(6-3 6-2)으로 제압했다.

정현의 2회전 상대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케빈 앤더슨(31·남아공·세계랭킹 16위)이다.

강서브가 강점인 앤더슨은 US오픈에서 결승까지 올랐지만 리파엘 나달(31·스페인·세계랭킹 1위)에 0-3(3-6 3-6 4-6)으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정현과 앤더슨의 2회전은 19일 벌어진다.

뉴스